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는 룡수포해수욕장



무더운 여름날 한껏 달아 오른 몸을 식히는데는 해수욕만 한것이 없다. 하다면 바다와 멀리 떨어진 평양시민들이 해수욕을 즐길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물론 송도원이나 마천, 시중호와 같은 동해의 명승지들도 있지만 서부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에서 그곳까지 가자면 차를 타고 오래동안 가야 한다.

거리가 그다 멀지 않으면서도 해수욕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곳으로는 서해지구에 자리잡은 룡수포해수욕장만 한것이 없다.

평양에서 떠나 남포시에 있는 웅장한 서해갑문을 통과하여 황해남도 은률군을

지나 좀 더 가느라하면 파일군 룡수포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

룡의 머리와 같이 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예로부터 룡수포라 불리워온 이곳의 서쪽바다기슭에 해수욕장이 자리잡고있다.

언제부터 이곳에서 해수욕을 하였는지는 잘 알수 없지만 조선봉건왕조 말기 부자들이 기생들을 끼고 관광을 하였다는것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룡수포가 명승지로 이름났었다는것은 분명하다.

맑고 잔잔한 물, 넓게 펼쳐진 백사장, 푸른 소나무 등이 울창한 수림을 이룬 이곳을 보느라면 마치 동해의 명승 송도원이 그대로 옮겨온

듯 한 감이 든다.

룡수포는 해수욕하기에 매우 좋은 충분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있다.

원래 조수력차가 매우 심한 곳이 조선서해라고 하지만 이곳의 밀물과 썰물차이는 이상하리만치 심하지 않으며 물이 얕고 물온도가 해수욕에 알맞춤할뿐 아니라 바다밑의 물때도 느리다. 게다가 북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초도가 자리잡고 있어서인지 해마다 일군 하이는 해일피해도 거의나 입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경치가 아름답고 해수욕하기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갖춘 룡수포해수욕장으로는 매일과 같이 수

많은 평양시민들과 남포시와 황해남북도 지어 개성에서까지 각계층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곤 한다.

룡수포해수욕장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7월초부터 9월까지 하루에만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곤 한다고 한다. 특히 삼복철을 비롯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너도나도 바다물에 뛰어들어 창파를 헤가르며 한껏 달아오른 몸을 식힐 때 잔잔한 물결이 출렁이는 금모래물에 서는 아이들이 모래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가하면 바다가 여기저기서 모래터배구와 모래터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명랑한 모습도 인상적이다.

룡수포해수욕장에는 수영복과 구명대들을 대여해주거나 갖가지 청량음료들과 당과류, 과일, 수산물들을 봉사해주는 매대들도 갖추어져있어 누구나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해수욕을 즐길수 있다.

하기에 이렇듯 훌륭한 룡수포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넘쳐나는 룡수포해수욕장, 오늘도 좋지만 내일은 더욱 훌륭하게 번모될 룡수포해수욕장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매일과 같이 흥성이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룡수포해수욕장의 어디서나 화열과 향만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른다.

하지만 룡수포해수욕장이 어떻게 되어 인민의 명승지로 훌륭히 꾸러질수 있었는 지 그대 해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룡수포해수욕장에

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예로부터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와 명승지로 이름 높은 룡수포를 인민들이 즐겨 찾는 해수욕장으로 꾸릴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시었다.

주체82(1993)년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파일군알바다에 해수욕장을 더 잘 꾸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그 문정 전하는 인민의 문화휴식터

을을 적시곤 한다.

언제인가 룡수포해수욕장의 끝단에서 건설재료를 쓰이는 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취하였으면 하는 일군들의 제기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아무리 좋은 건설재료라고 하여도 룡수포의 훌륭한 경치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이르지셨다고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해방직후 묘향산에서 일제가 운영하던 금광을 계속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

을 때 아무리 금광에서 천만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묘향산의 경치와 바글수 없고 조국의 명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단호히 폐광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을 비움는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얼마전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에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정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수포해수욕장을 세계적인 해안공원으로 꾸리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전하며 오늘날 서해의 명승 룡수포해수욕장은 수수천년전부터 내려오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한껏 자랑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떠나고 싶지 않다

이번에 가족과 함께 룡수포해수욕장에 왔다.

작년에는 하루동안 왔다 갔었는데 안해와 딸이 어찌나 서운해하던지 올해에는 아예 이틀동안 있을 계획을 하고 왔다.

와볼수록 너무나 마음에 들어 떠나고 싶지 않다.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에도 가보았으나 바다가의 해수욕장은 또 그것대로의 특색이 있어 정말 좋다.

앞이 탁 트이도록 넓고 넓은 바다, 어서 오라 손저어 반기듯 촛구멍미 밀려드는 파도, 갈간데없이 펼쳐진 백사장...

하늘을 날아에는 갈매기와 내기를 하듯 넘실대는 파도를 헤가르며 해염을 치기도 하고 굴수술, 은구술을 뿌린듯 같은 모래볼우를 이리저리 던굴며 해빛조이기를 할 때의 상쾌함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리라.

해풍이 선들선들 불어오는 바다가에서 제 손으로 잡은 조개로 입김을 후- 후- 불며 맛나게 어죽을 쑤어먹기도 하고 조개구이도 하는 재미를 여기 말고 또 어디서 맛볼수 있겠는가.

소확고 3학년에 다니는 내 딸은 돌아가면 이곳에서 재미나게 놀던 일들을 자랑도 하고 또 학급동무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희귀한 조가비들을 많이 수집하였다.

이곳에서 이틀동안 해수욕을 하였는데 힘이 막 부쩍부쩍 쏠는다. 돌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여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룩해운성 부원 권영철

바다의 정복자로

지난 시기 다른 동무들이 수영장에서 100m, 200m씩 성성 해엄쳐나갈 때 나는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곤 하였다.

해엄칠줄 모른다는 부끄러움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동무들과 함께 룡수포해수욕장에 온 기회에 해염을 배우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여러날동안 동무들의 방조를 받으며 직심스럽게 훈련을 하였더니 나 자신도

서 재미나게 놀던 일들을 자랑도 하고 또 학급동무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희귀한 조가비들을 많이 수집하였다.

이곳에서 이틀동안 해수욕을 하였는데 힘이 막 부쩍부쩍 쏠는다. 돌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여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룩해운성 부원 권영철

해수욕장의 이모저모

유쾌한 전막생활

즐겁고 유쾌한 해수욕장의 하루해가 저물고 어둠이 깃들면 사람들은 해변가에 설치한 천막으로 돌아간다.

단위별, 가족별로 설치한 천막들마다에서 나뭇대로의 특색있는 생활들이 펼쳐진다.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천막안에서 저녁준비를 하는 녀인들, 정다운 칼도마소리와 함께 음식끓이는 냄새가 사람들의 기분을 흥뜨게 한다.

갈매기 날아에는 해변가에서 칠해지는 파도소리를 노래소리처럼 들으며 《거 맛 참 좋다.》하며 맛나게 음식을 드는 멋을 어찌 변화한 도시생활에 비길수 있으랴.

그런가하면 어느새 식사를 끝낸 천막들에서는 흥취나는 오락회가 벌어진다.

손풍금과 기타, 북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는 시간이 감에 따라 고조를 이루어 나중에는 드넓은 백사장이 출판으로 번져진다.

기나긴 여름밤도 여기 룡수포해수욕장에서는 짧기만 하다.

《천하별미》

조개구이와 어죽

룡수포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조개구이와 어죽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것이 해수욕을 하다가 백사장에서 조개도 굴고 어죽도 쑤어먹는 멋이야말로 별재미이다.

금방 잠은 크고 생신한 조개를 모닥불로 달군 시벌진 구이판에 올려놓으면 칵- 칵- 소리와 함께 입을 썹 벌린 조개들이 누렇게 익어간다.

조개나 굴을 바다물에 씻어 가마에 두고 푹 끓인 후 쌀과 함께 죽을 쑤느라하면 구수한 그 냄새에 절로 군침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다.

입김을 후- 후- 불며 저마다 폼배기를 청하는 모습이야말로 이곳 해수욕장에서 볼수 있는 즐거운 풍경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오늘의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종각에 걸려있는 평양종은 1726년에 부벽루 서쪽물에서 주조완성한것이다.

종의 질량은 12t 914kg, 높이는 3.1m이며 아구리직경은 1.6m이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명 등이 조각되어 있다.

걸고리는 쌍룡을 임으로 하였는데는 룡머리의 형상이 생동하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는 큰 종가운데 하나로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알려졌다.

그런한 평양종이었던건만 일

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는 제소리를 내지 못하였었다.

해방직후인 1945년 12월 31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대동문동의 평양종을 지금도 칠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이 종은 우리 민족조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리용했던 중요한 방위신호수단이었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종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후 놈들에게 놀려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금되어있었으니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웅장한 제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하여 그날밤 12시 평양종의 종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 퍼졌다. 장중하면서도 은은한 평양종소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첫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겨레의 기쁨과 환희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명화 《례성강도》 (5)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3

그해 1124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늘 인산인해로 설레이는 벽란나무는 오늘도 레외없이 인파에 부대끼고있었다. 어느날과 다른것이 보인다면 형형색색의 다른 나라의 배들을 한천으로 물리고 고려의 위용이라 자랑하는 웅장한 파선 몇척이 배다랗을 차지한것이었다.

여러길이 넘는 높은 배전도 군마를 달린다는 넓은 갑판우의 투각같은 다라니하늘을 찌를듯 한 아름드리꽃대들도 볼만 했지만 그 어떤 적선도 단숨에 들이받아 깨칠수 있다는 육중한 쇠기둥이 붙은 이물들은 보다 더 볼만 했다.

백수십명이 너럭하게 탈수 있는 파선으로 임금의 어지를 받고 송나라로 가는 조정신하들이 오르고있었다. 군사관계를 맡아보는 추밀원의 부사리직을 정사로 하고 조정관리들의 사사공무를 감찰하는 어사대의 중승 김부철을 부사로 하는 사신들이었다.

이 사신단에는 전례에 없이 화공 리녕이 속해있었다. 리녕은 맨 마감으로 배에 올랐다. 그는 뜻대에 의지한채 벼란도를 둘러보았다.

사신들을 배래주러 나온 그들의 처자친속들, 각 관청들의 벼슬아치들, 구실아치들로 배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리녕은 꿈을 꾸는것만 같

았다. 그림의 대가라는 송나라 휘종황제가 고려임금에게 화공을 보내주었으면 하는 요청에 따라 리녕이 뽑힌 것이었다.

드디어 고려사람의 슬기와 재주를 보여줄 기회는 왔다. 리녕에게 지금 아쉬운것이 있다면 몇달동안 고심하여 《례성강도》에 전혀 붓을 대보지 못한채로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는것이였다. 며칠전 송이와 함께 미라산정에서 해돋이를 맞으며 새겨본 례성강의 전경이 눈에 선하게 살아있다.

《아빠-》

리녕은 인파가 설레이는 그속에서도 광필이의 목소리를 가려들었다.

광필이를 안은 송이의 아름다운 자태가 리녕의 눈을 꼭 채웠다. 송이의 두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무엇일 바라는지 안다.

(???)

리녕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보고 또 보아도 송이의 탐스러운 또래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송이는 머리를 얹은것이였다.

리녕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그 저녁 송이네 집을 찾았을 적에 송이의 어머니가 광필이는 지금부터 이 집에서 키우겠으니 아무 걱정 말고 그림에 전심하라고 한 말들을 이젠 모두 알았다.

고려의 얼이 깊은 그림을 그리는 일을 어찌 작은 일이

라고 하랴.

(송이! 기다려주오. 내 기어이 우리 나라의 영예를 떨치겠소.)

《땀을 흘려라!-》

《땀을 흘려라!-》

떨럭떨럭...

송중에 파선들은 기치를 휘날리며 사풍치는 파도를 누비기 시작했다.

《잘 다녀오시오이다. -》

리녕은 점점 멀어지는 광필이를 안은 송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붓을 어루만지였다. ...

보름만에 리녕을 실은 고려의 파선들은 만경창파를 헤가르고 송나라에 닿을 내리었다.

리녕은 휘종황제가 특별히 보낸 벼슬아치의 안내를 받아 황제궁으로 들어갔다. 으리으리한 궁성에서 황제는 리녕을 맞아주었다. 황제의 주위에는 송나라의 황족들, 고관들, 한타하는 재사들이 다 모여있었다.

리녕은 가지고 간 밥상만 한 백주치를 펼쳐놓고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붓을 들어잡았다.

그의 눈에는 먼저 광필이를 안은 송이의 모습이 보였었다. 고국은 곧 선조들의 무덤과 부모님들과 처자들이 있는 땅이고 벼들이 사는 땅이다. 그 고국을 빛내이는자 진정으로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일것이다.

리녕은 아침제가 찬란한 고국, 례성강의 그 벽란나무

를 잠시 그려보았다.

황제와 그 신하들은 바다를 건너온 동방벽외지국의 화공이 어떤 신비한 재간을 보여줄가 하여 손에 땀을 쥐고 손끝만을 주시하였다.

리녕의 눈에서 예지가 번득였고 이어 그의 붓대가 하얀 백주치우로 천천히, 그다음은 좀더 빨리 움직이더니 적진을 담사기는 군사마냥, 수풀속을 뛰쳐나가는 맹호마냥 총횡무진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동해를 거슬러오른 둥근 불덩어리가 누리를 비치는 해돋이순간에 고착되었고 그 빛을 받아 펼쳐진

으로 황도으로 펼쳐진 거리는 여러 나라 천선의 사철들이 늘어섰다.

이윽하여 리녕은 자신만만하게 《례성강도》라는 제명을 남기였다.

리녕이 그리는 《례성강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을 죽이고 들여다본 휘종황제는 잠깐 놀랐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재주라고 할가. 리녕의 재주는 아직까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려의 독특한 화법이었고 지루한 문명의 봉우리였다.

휘종황제는 리녕의 손을 꼭 잡고 그대는 천재이고 《례

명화 《례성강도》는 압시에 온 송나라를 진감시켰다. 날마다 송나라사람들은 앞을 다루어 리녕을 찾아와서 《례성강도》에 있는 그 소나무 한그루만이라도 그려달라고 성화를 먹이였다.

휘종황제는 그림의 대가는 자신이나 고려사람 리녕이라면서 송나라의 화공들만이 아니라 글을 다루는 한림원의 관원들까지 전부 모아놓고 그림그리는 술법을 가르쳐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들앞에 나선 리녕은 겸손하게 말하였다.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것을 그대로 그릴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야 좋은 그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오이다. 이름없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그것을 가지고 지켜온 사람들의 넋이 깃들적이 되는 사람들을 감동을 느끼게 볼것이오이다.》

리녕은 그림 실물로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개경의 동대문앞에 일떠서있는 천수사와 그 풍경을 한붓칠, 한붓칠을 해가며 설명해주었다.

리녕이 붓을 달릴 때마다 송나라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것이 또한 세상에 명화로 알려진 《천수사 남문도》였다.

리녕은 이렇게 고국 고려의 명성을 만방에 떨치였다. 명화 《례성강도》를 보는 사람들은 저저마다 야! 야! 탄복을 금치 못하면서 찬란한 문화의 나라가 아침에 빛나는 고려임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하였다.

(끝)



푸르른 하늘아래 갈매기들이 날고 역센 소나무들이 기암우에 우뚝한 그안에 땅을 차고 날아오른듯 한 합각지붕을 떠민 두 벽란정이 푸른 파도 설레이는 강물을 마주하더니 이 세상끝에서 달려온 기이한 꽃배가 방금 선창에 들어서서 그우로 뚝대기 숲을 이루었고 송악산을 배경

성강도》는 천하에 둘도 없는 명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제는 비단천에 갖 폴칠을 하고 그림종이를 붙이는 배접을 하기에 앞서 천재의 이름을 밝혀달라고 청을 하였다. 리녕은 어깨를 낮추고 그림의 뒤에 고려국 화공 리녕이라는 달필을 남겼다.